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이렇게 안돼?' 그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껄껄 웃으면서 '참 즐겁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허무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느긋함, 원력, 그것이 한데 합쳐서 에너지로 화해서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도 소가 죽어 갈 때 아프지 않고 죽어서 그 모습을 화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주어집니다, 무명만 벗겨 주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보살이며 부처며 법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충만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복수비자인가 뭔가 그것도 모릅니다만 그거를 내게 되면 수차 자주 올 겁니다. 알래스카에도 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한마음으로 다지고 다져서 이 공부를 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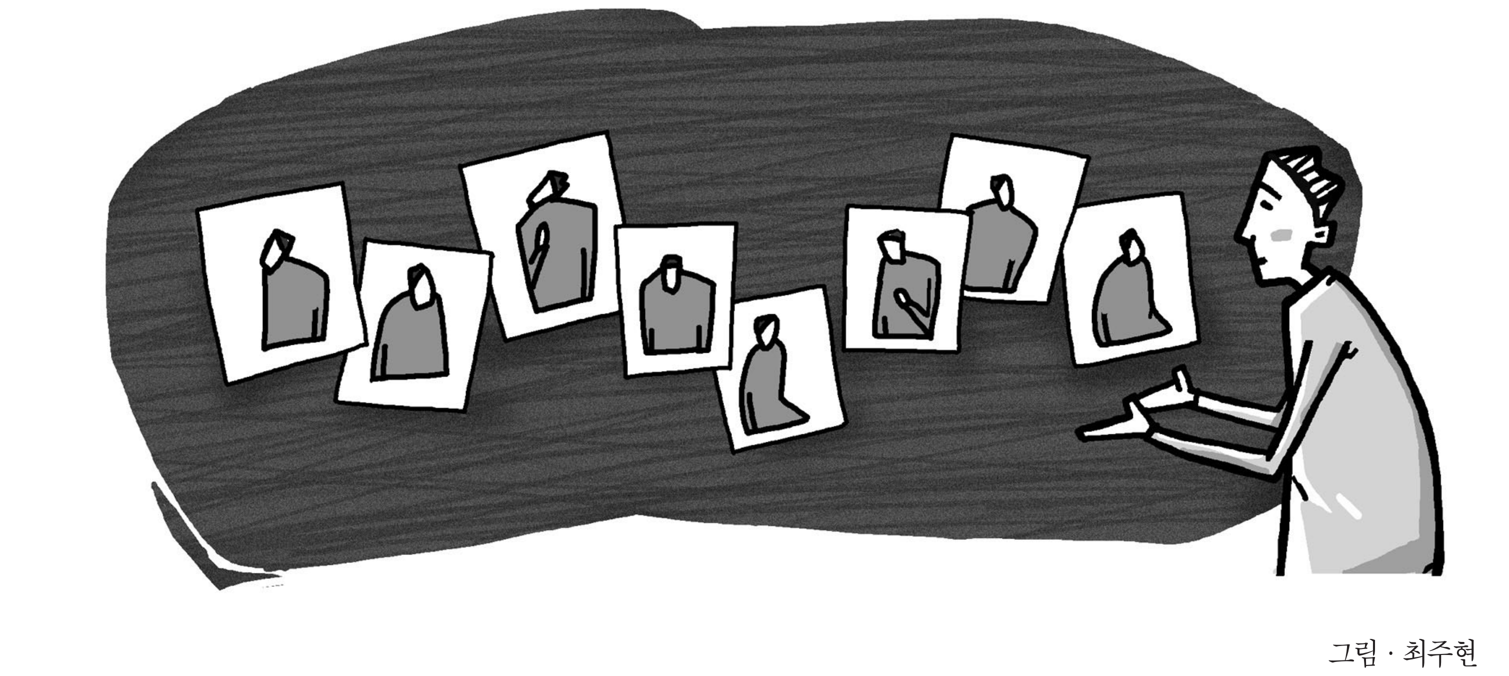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어떤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내가 뭘 일러 줄 텐데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 리 밖에 나갔다가도,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안테나가 좀 움죽거리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거 스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빨리 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전화가 있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면 못해. 그런데 하물며 이 사방을 다 통하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도 할 겸,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데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못하든 남자가 잘못하든 어떠한 거를 무릅쓰고 '아!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할 거야.' 남편이 술을 아주 과하게 먹는다거나 또 안 들어온다거나 또는 성질이 이상하다거나, 또 병이 들었다거나 그래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당신이 해결할 수밖엔 없어.' 하고선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말로는 좋게 해 드려요. 언제나 따뜻한 데 사람이 고이게 돼 있지 냉랭하고 추운 데 고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아주 잘 짐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면서 이 말로 좋게 얘길 해 주면, 아무리 속 썩이는 말을 하고 속 썩이는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보, 당신 참 피로하지요." 하고서 좋게 얘기해 주고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다가 하소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척 잘못하고 들어왔는데도, 번연히 알면서도 좋게 말해 주거든. '이거, 이거 내가 자중할 수밖에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럭하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는 사랑이 하고 싶어져. 그래서 가정으로, 따뜻한 데로, 피로하면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게 돼 있어.

모두 여러분의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야, 네가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가, 또 동생도 됐다가 누이동생도 되고 딸도 되고, 어떤 땐 할머니도 되고 어머니도 돼 드려라. 그렇게 안 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때에 따라서 속상하면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나갔다가도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 속상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화목하게 질서 있게 또는 능력 있게 자유스럽게 아주 사랑하면서, 진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 참,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그렇질 못하면 만날 만나면 싸우고 눈 노리고 좋은 말 안 하고 이렇게 되니 가정이 뭐가 따뜻해. '아, 들어가면 또 그럴걸.' 하고 나가.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이리저리 풀다가 들어오거든. 바깥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에 와서 풀어야 할 텐데 그렇질 못하다 이거야. 여러분이, 남편은 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할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또 친구가 돼 줄 수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동생도 돼 봐라 이거야. 그러면 화목한 회전이 돼서 우리가 참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불법은,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일체 모든 생명을 말하고 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나 불법이나. 그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그냥 말해서 떨어지는 거는 한데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라고 하면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전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진리니까.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없고 마음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몸뚱이가 화두요, 생활이 참선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자 진리이자 생활입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세요. 법당에 들어오면 벌써 저 부처님하고 내 형성된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요, 그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요,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저런 이파리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저런 이파리 하나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저 이파리 생명체, 저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군사가 돼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호국 불교를 한다고 몸뚱이가 나가서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질 않습니다. 앉아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해야 싸움을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해도 그래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지. 나라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도 다 그렇죠. 상업을 해도 그렇고 공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무역을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것도 상업이니까. 정치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육해공을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천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그냥 말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그 뭐라고 말할까요? 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십시오. 그럼 내가 말한 이 외의 것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광대무변한 거 난 처음 봤어. 이 허공에도 생명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구나.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못 뜨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지리 혈맥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지리학을 써 놓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지리학이라기보다도 이 지리 혈맥, 모든 청룡 황룡 백호, 이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라 그런다고 또 '나'를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나입니다. 예수가 '나를 믿어라' 이러니까 전부 자기 하나, 이걸 믿으라는 줄 알고 말입니다. '나' 하면 벌써 일체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벽을 치면 붓장이 울려야지.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 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 나지, 어째서 개별적인 나입니까? 그러니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라는 것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 같이 살면서 웬 말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까? 항아리 속에 같이 우글우글하면서 아니, 내 집 네 집 찾을 게 뭐 있습니까, 한 항아리 속에서.

난 그게 딱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리를 몰라 가지고야 어찌 지구 바깥을 나가서 우주의 섭리를 다 터득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인공한테 맡겨 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맡겨 놓는 반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와요. 저승길에 들어가야 저승 이치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허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승에 들어가기는커녕 살았다고 바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둥바

☞ A30면으로 계속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방 장 학봉지선
주 지 원일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동진

종회의장 벽송
장로의장 진성
호법원장 벽안
교육원장 법산
감사(찰)원장 벽송
문화원장 자원
포교원장 종문
전국비구니회장 무운

대외협력원장 보현
총무부장 벽산
감사(찰)부장 일현
재무부장 약왕보살
사서실장 상범

서울교구원장 보현
울산교구원장 혜운
경북교구원장 현담
경남교구원장 명각
강원교구원장 원광
광주교구원장 정인
부산교구원장 지익
충북교구원장 무운
충남교구원장 봉정
대전교구원장 천장

종도일동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